

대비하세요!!

■ 장마철 가스시설 이렇게 점검합니다!

장마철이 다가옴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집중 호우에 따른 침수 및 지반붕괴 등으로 인한 간접요인에 의해 가스시설이 손상을 입거나 고온·다습한 기후로 인하여 제품의 작동불량 등에 의한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스시설 안전점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입니다.

장마철 발생하기 쉬운 가스사고 유형입니다.

가스시설 연결부분이 이탈되어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
집중호우로 인해 가스시설이 침수 또는 홍수에 휩쓸리면서 발생하는 경우
침수된 가스시설 복구 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할 경우

장마를 앞둔 가스사용 가정에서는 사전에 점검합니다.

호스와 가스용품, 배관 등 연결부분이 잘 조여져 있는지 살펴본 후 오래된 시설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미리 교체한다.

※ 대기의 순환이 잘 안 되는 장마철에 LP가스가 누출되면 바닥과 같은 곳에 체류, 화재또는폭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다 세심하게 점검해야 합니다.

갑작스런 홍수로 침수가 우려되는 가정에서는 이렇게 조치합니다.

- LP가스 사용 가정: 용기밸브를 잠그고 용기를 옥상 등 지대가 높은 안전한 장소로 옮겨 놓는다.
- 도시가스 사용 가정: 중간밸브와 계량기 전단의 메인 밸브까지 잠근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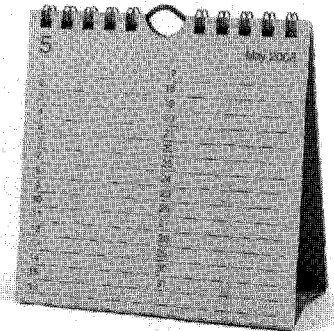
침수 후 가스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습니다.

가스렌지는 깨끗한 물로 씻어 흙 등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말려 주고, 가스보일러는 보일러사의 A/S를 반드시 받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- 침수된 가스렌지, 압력조정기 등은 제조사 A/S후 사용한다.
- 사용전 가스시설 전반에 대하여 공급자의 안전점검 실시 후 사용한다.
- 우기철에는 습도가 높아 점화불량이 발생하므로 충분한 점화테스트 후 사용한다.
- 연소기(가스렌지 등)를 이용하여 젖은 옷가지(수건) 등 건조를 금지한다.

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가스보일러를 가동할 경우에는 배기통을 확인합니다.

배기통이 이탈, 꺾임, 처짐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합니다.



태풍 · 집중호우에 대비하세요!!

여름철 풍수해가 시작되는 7월, 철저히 대비해야...



□ 소방방재청(청장 박연수)에서는, 7월은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비 오는 날이 많아져 호우피해, 낙뢰사고와 같은 여름철 재난이 증가하는 달이므로 국민 스스로 위험시설 점검·정비 등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수칙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.

- 기온이 상승하고 장마가 시작되며 호우, 낙뢰 등으로 인한 재해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기간으로 피해예방에 주의해야 하며,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발생하는 시기이다.
 - * 최근 10년('99~'08)간 월별로 자연재해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, 총 106건 중 6월에는 평균 8.8건과 비슷한 9건이 발생하여 12명의 인명피해와 2,50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며,
 - * 특히 매년 6월 중·하순에 장마가 시작되어 40일 가량 지속되는데 이 시기에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므로 재해위험 지역 사전점검과 예방조치가 필요하다.
- 낙뢰피해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,
 - * 최근 3년('07~'09)간 전국 43개 관측지점에서 연평균 787일(지점평균 18.3일)이 관측되었으며, 이중 우기인 6~8월에 492일(지점평균 11.4일) 동안 집중 관측되었다.
 - * 특히, 과거 3년('06~'08)간 총 42건의 낙뢰피해 중 6월에 17건(40.5%)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여 낙뢰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행동요령 홍보와 피뢰설비 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.

□ 인적재난의 경우

- 최근 3년('06~'08)간 붕괴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62건 중 6~8월에 26.7건(43%)이 발생하여 우기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 - * 특히, 붕괴사고로 매년 사망 23명, 부상 63명의 인명피해와 약 7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발생건수에 비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.
 - * 장소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공사장에서 46.8%에 해당하는 29건이 발생하였고 주거용 건물, 도로 등에서 발생하였으며, 원인별로는 시공부실이 25.3%, 시설관리부실은 14.5%로 분석되었다.
 - * 따라서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및 시설물에 대한 점검·정비와 우기 전 붕괴위험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.
- 최감전사고에 대한 과거 10년('99~'08)간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, 연평균 742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여름철(6~8월)에 271.5건(36.6%)이 집중되었고, 장마철인 6월에서 7월 사이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 - * 원인별로 살펴보면 전기공사 30.7%, 장난 및 놀이 13.4%, 기계설비공사 12.6% 등으로 분석되어 관련 공사 및 보수작업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.